

전주MBC

긴급방제로 이화명나방 개체 수 60% 줄여

벼농사에 큰 피해를 주는 이화명나방 2화기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제가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엿새간 실시된 긴급방제 이후 현재까지 이화명나방 페로몬트랩 조사 결과 포획 개체수가 전년 대비 60% 이상 줄어들었습니다.

군산시는 예비비 11억 7천만 원을 들여 지역농협과 긴급방제를 실시해 이화명나방 개체수가 급감했다며 벼 이삭이 패는 시기인 출수기 전후에 다시 한번 종합방제를 하도록 농가에 당부했습니다. (임홍진기자)